

‘매미 김치’ 화제 ... “따뜻한 밥 반찬으로 제격”



▲ 한국계 미국인 셰프 조셉 윤이 만든 매미 김치.
사진=뉴욕타임스 캡처

미국에서 올여름 1조마리에 달하는 매미 때가 출몰할 것으로 예고되자, 매미를 이용한 각종 요리가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다.

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식용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미는 나무에 있는 시끄러운 탑스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매미를 이용한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는 셰프들을 조명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매미 김치'다. 한국계 미국인인 셰프 조셉 윤이 만든 이 김치는 매미를 통째로 양념과 버무려 발효액이 천천히 매미의 단단한 껍질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이 셰프는 잘 익은 매미 김치를 부드러운 두부나 따뜻한 밥과 함께 상에 낸다.

윤 셰프는 매미가 "랍스터나 새우 같은 것이다. 나는 매미를 그저 또 하나의 식재료로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실제로 매미는 랍스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매미를 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곤충 섭취를 폄하하거나 충격적인 일로 여긴다. 하지만, 전 세계의 약 20억 명 인구는 이미 곤충을 평범한 음식으로 먹어왔다고 NYT는 강조했다. 과학자들은 매미가 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지 않은 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타벅스·맥도날드 안 가는 미국인들

미국의 대형 식음료 브랜드들이 잇따른 가격 인상 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6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식품 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비용 증가에 대응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가 외면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3월 기준 웬디스나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가격은 2019년에 비해 33%나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식음료에서 가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레비뉴매니지먼트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용객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맥도날드 경영진은 저소득층을 중심으



▲ 스타벅스 등 대형 식음료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한 상품을 찾기 위해 미국인들이 더 많은 식료품점으로 발품을 팔고 있단 조사도 있다.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에 기업들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더 많은 프로모션을, 몬텔리즈는 가격 할인과 더불어 양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제품을 선보일 전망이다.

학교, '스마트폰 강제 수거'하자 학생들 긍정 변화

청소년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일부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하기 시작했다.

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펜실베이니아주 등 학교들이 점차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휴대폰을 내고, 하교할 때 다시 받아 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거 조치가 이뤄지는 이유는 미 의회계와 뉴욕 시 보건당국이 '미국 청소년의 약 3분의 1은 SNS에 사실상 중독돼 있다'는 경고를 했기 때문이다.



▲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지역의 톨린스 중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wbur.org

이 정책을 시행한 학교들은 정책 시행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자평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학교의 조치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거나 불안 증세까지 보였지만, 학생들은 달라진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으며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학생 간 다툼도 줄었다는 평가이다. 또 직접적인 소통이 늘면서 교우 관계도 원만해졌다.

'긴급 연락'을 위해서 대부분의 학급이 최소 1개의 유선 전화를 교실 안에 설치했다. 또 부

모들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연락할 수 있다. 학교 측은 충격 사건 등이 있을 때는 휴대폰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조용히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밝혔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 시간

OC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수요일 오전 10시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목요일 오전 10시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 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TAX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CONSULTING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KIM & CHOI
ACCOUNTANCY, P.C.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